

韓國教會의 量的 成長과 敎人들의 價値觀

—永樂教會를 中心으로—

韓 完 相*

I. 問題 提起

韓國의 基督敎會(改新敎)는 量的으로 急成長하는 敎會로 自他가 公認한다. 不過 90年만에 韓國 改新敎人은 무려 四百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量的 成長은 이웃의 日本이나 東南亞 여러 나라의 形便과 比較해 보면 놀랄만한 성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왜 이같은 팽창이 가능했는가? 둘째 이 팽창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筆者는 주로 두번째 문제에 注目하고자 한다. 그러나 첫번째 문제에 대한 이해없이 두번째 문제를 다룰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 改新敎 敎會의 量的 急成長은 적어도 몇 가지 요인들의 複合的 作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外來文化의 한 項目으로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社會的·文化的·정치적 素地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19세기 末의 처절한 國內 國外狀況에서 나라의 自強과 自立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爲國忠君의 愛國 엘리트가 改新敎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다른 한편, 朝鮮朝末의 社會·政治·經濟的 紊亂과 官의 腐敗로 인해 심한 착취와 가림주구에 시달린 庶民民衆들이 敎會의 품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이다.¹⁾

우리가 여기서 注目해야할 점은 개신교를 받아들였던 社會階層에는 知識 엘리트와 愛國民族主義的 엘리트와 함께 당시의 부패한 官에 의해 극도로 피해받고 있었던 民衆層이 다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民衆과 愛國的 知識人이 다함께 기독교를 受容하였다는 사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대체로 基督教이라고 하는 西洋의 宗教가 非西洋地域에 전파될 때 이것은 土着勢力, 특히 民族主義的 土着勢力에 의해 拒否당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었다. 더구나 기독교가 西洋의 帝國主義的 침탈과 팽창주의적 野望이 絶頂에 이른 저 19세기 狀況에서 非西洋地域으로 맹렬히

* 前 서울大 敎授.

1) 李萬烈, “韓末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韓國史學會刊, 韓國史論 제1집, 1953년 5월. 閔庚培, 韓國基督敎會史 增補版, 大韓 基督敎 書會刊, 1976.

전파되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감안할 때, 西洋文化의 한 項目인 기독교가 西洋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低意를 宗教라는 옷으로 가리고서 당시 맹위를 떨쳤던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이해되었던 것을 無理라고 탓하기 어렵다. 기독교는 곧 西歐 植民主義와 同一視되었던 것이다.

被植地 民族勢力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反民族的인 宗教로 規定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韓國 改新教은 대단히 다행스런 歷史的 狀況에서 전파되었던 것이다. 나라의 自立과 自強을 외쳤던 社會勢力이 20世紀初 日本의 제국주의가 점차 이 땅에서 制度化됨에 따라 反日本帝國主義 勢力으로 그 性格의 焦點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곧 韓國基督教이 처음부터 反帝國主義的 性向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反日本植民主義라고 하는 民族主義的 性格을 뚜렷하게 가졌던 것이다.

日帝의 세력은 大韓帝國이라는 民族國家(Nation State)를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먼저 國家(State)를 무너뜨렸다. 이것은 乙巳保護條約에서 그 무너짐의 소리가 크게 들렸고, 韓日合併에서 그 무너짐의 결말이 뚜렷해졌다. 國家가 망할 때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곧 나라의 自立과 自強을 외쳤던 세력들이었다. 그러나 韓日合併을 통해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를 삼켜버린 日帝가 이제 民族(Nation)이라는 實體마저 무너뜨릴려고 할 때 그전에 國家의 獨立 自強 및 自立을 외치고 행동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民族의 自主性을 위해 투쟁하였다. 여기에 民族主義와 獨立自主精神이 힘차게 빛나게 된다.

韓國에 있어서 初期 改新教信者 중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로 그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이 교회지도층의 中心勢力이었던 것이다. 즉 國家의 自立과 自強을 위해 행동했고, 國家가 日帝에 의해 무너진 후에는 民族文化의 自主와 獨立을 위해 투쟁했던 社會勢力이 바로 韓國改新教 勢力의 中核이었다. 이렇게 볼 때 韓國改新教은 그 출발에서부터 國家・民族의 自立, 自強, 自主, 獨立을 강조하고 이 理念을 위해 鬪爭한 愛國心에 투철한 民族主義勢力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렇기에 韓國 改新教 教會가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독특한 歷史的 幸運이기도 하다. 韓國以外的 非西洋地域에서는 기독교가 親帝國主義로 이해되고 反民族主義로 규탄되었지만, 韓國에서만은 改新教이 反帝國主義, 親民族主義, 親民衆의 宗教로 인식되고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개신교가 들어온 때부터, 특히 乙巳保護條約에서부터, 1945년 解放에 이르기까지 韓國教會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日本帝國主義와 연결시키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教會의 民族主義的 性格을 無視하고 韓國基督教을 이해하기 어렵다.²⁾ 이것은 곧 韓國教會의 급속한 성장을 民族과 民衆의 愛國愛族의 熱望에 연관시킬 때 바로 그것이 제대로 이해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1945년 解放과 더불어 日帝의 사슬에서 國家와 民族을 다시 찾게 된 이후에는 韓國教會는 愛國心과 民族主義的 精熱의 밑받침을 받아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2) 車基壁, “韓國 民族主義와 基督教—改新教을 中心으로”, 崇田大學校 論文集 第6輯, 1976. pp. 533—544.

悲劇의 始作이 있다. 韓國教會는 親西歐의 세력, 親美的 勢力으로서 歐美의 文化의 直輸入者로 인식되었고 그렇기에 親外勢主義者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 教會成長의 비결은 祈福除禍의 巫堂宗教의 性向에서 찾을 수 있고, 自由黨時代에서는 親政府的인 性向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 1930年代부터 本格的으로 韓國教會에 들어온 根本主義的 信仰形態가 解放後 韓國教會를 分裂시키면서도 自派教會를 급속적으로 성장시킨 要因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에 되돌아 가보아야 한다. 歷史적으로 보아, 韓國教會가 급성장했던 것은 日帝時代에는 反帝國主義的 民族主義와 親民衆의 姿勢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韓國教會의 傳統이요 유산이지만, 解放以後에 급성장했던 主要한 要因이 祈福除禍의 巫堂性과 根本主義信仰形態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유산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락교회를 事例로 하여 그것의 성장을 갖다준 몇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한국에서 量的으로 가장 성공한 교회는 영락교회일 것이다. 30年 동안 27명에서 13,000명으로 급성장한 오늘의 영락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가지일 것이다. 그중에서 敎회의 共同體의 매력, 牧會者의 카리스마적 引力, 敎人들의 根本主義的 信仰과 正統主義的 信仰 및 反世俗主義的 態度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한국교회 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重要한 要因中的의 하나는 牧會者의 特性이다. 牧會者라고 하는 敎會指導者의 指導性이 敎會의 量的 膨脹에 대단한 힘이 된다는 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永樂의 그 기적적인 急成長을 이해 하려면 牧會者의 特性을 重要한 獨立變數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敎人들의 意識構造도 함께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바로 이 두 변수를 다같이 중요한 것으로 보되, 특별히 敎인의 의식구조를 中心으로 오늘의 永樂敎會의 特徵을 把握하려고 하며, 이러한 事例研究를 통해 韓國敎會의 構造的 性格을 간접으로나마 이해해 보고 나아가 오늘의 韓國敎會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永樂敎會의 몇가지 措置的 特徵과 문제점

永樂敎會는 일종의 출애굽교회로 出發했다. 현대판 ‘바로王’의 體制인 北韓 共產主義 體制에서 ‘출애굽’한 교회로 시작하였다. 日本 帝國主義라는 ‘바로王’의 사슬에서 解放된 후 日帝를 代置한 共產主義라는 全體主義 體制에서는 도저히 信仰의 自由와 敎會의 自律性을 지켜갈 수가 없게 되어 自由大韓으로 피난해온 韓景職牧師를 속속 뒤따라 온 敎인들이 오늘의 永樂을 形成한 主動勢力이다. 여기서 우리는 永樂이 信仰의 自由라는 理想을 體驗的으로 목말라 한 韓國人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自由를 찾아 ‘엑소더스’를 하여 形成된 信仰共同體임을 깊이

銘心해야 한다. 不自由 狀態, 閉鎖主義 體制, 獨裁主義 體制로 부터 脫出한 信者들로 始作된 教會가 바로 永樂教會이다.

동시에 永樂은 한 地域共同體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다. 대체로 西北地方民들로 구성된 교회이다. 初期에는 거의 이 地方사람들로만 교회가 운영되었고, 현재는 비록 거의 70% 정도만이 지방 사람이지만 教會를 이끌어 나가는 主軸機關의 人物은 거의 다 이 地方出身이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共產主義者들의 虐政과 彈壓에 견디지 못해 월남한 失鄉民들이 낯선 곳에서 자연스럽게 고향다운 곳을 찾기 마련이며,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共同體를 모색하게 되고 그것을 形成하게 된다. 永樂教會는 이러한 뜻에서 失鄉民에게 하나의 故鄉共同體를 제공해 왔다. 永樂은 고향을 등지고 南으로 내려온 西北地方의 信者들이 서울에서 形成한 하나의 종교적 게트(Ghetto)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곳의 독특한 文化를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는 그 지역의 言語를 中心으로 한 여러 生活樣式을 꺼리낌없이 保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永樂은 한 地域의 文化를 保存시켜온 기능 뿐만 아니라, 他地域에서 뿌리뽑힌채 살면서 生活의 適應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西北地方사람들을 뜨겁게 統合시키는 機能마저 담당해 왔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單純한 地域共同體가 아니라 自由라고 하는 理念으로 뭉친 理念共同體이기도 하다. 여기 자유는 단순히 신앙의 자유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있어서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永樂敎人, 특히 初期의 永樂敎人들이 강하게 지니고 있던 自由는 일종의 消極的 自由였다. 그 어떤 不條理한 構造와 抑壓의인 體制로부터의 脫出이라고 하는 뜻에서 自由이다. 즉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自由였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에로 向한 또는 무엇 무엇을 위한 積極的인 自由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自由의 理念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은 자체안에 있는 不平等과 이에 따른 不自由의 문제 즉 社會正義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기 쉽다. 그렇기에 오늘의 永樂을 社會理念의 側面에서 볼 때 保守的인 理念集團이라고 規定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北韓의 共產全體主義에서 자유로운 현재를 감사하는 나머지 우리속에 있는 不平等, 不正義, 不自由, 非人間化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初期의 특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첫째 출애급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점차 출애급이라고 하는 解放과 脫出의 行動過程을 스스로 無視하게 되었다. 기독교신앙의 특징이 항상 출애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³⁾ 그리고 그 출애급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신앙이 자란다고 한다면, 永樂教會는 時間이 경과할수록 출애급의 그 力動的인 기백을 상실하여 새로운 애급에 安住하려는 안일하고 보수적인 傾向이 생기게

3) Harvey Cox, *The Secular City: 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London: SCM Press, 1965. 第一章을 참조.

되었다.

初期는 이같은 출애굽의 생생한 경험에서 오는 따뜻한 ‘코이노니아’가 健在했으나 이러한 혼 혼한 共同體의 분위기가 適應과 安着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官僚制的 性格에 의해 조금씩 흐려지고 좁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新世代가 증가하게 되고 舊世代와의 社會心理的 距離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教會內의 젊은 층의 불만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그만큼 舊世代의 統制가 강화될 수 있는 可能性을 낳게 되었다.

1945년 12월 2일 27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13,000을 넘는 肥大한 교회로 성장됨에 따라 지워야 할 代價도 적지 않다. 永樂이 갖고 있었던 강한 共同體意識이 점차 退色되고 대신 大衆社會의 大衆(Mass)의인 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初期信者와 그 가족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으나, 이제 地域과 관계없이 그리고 출애굽과 관계없이 永樂에 찾아오는 信者들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기 쉽다. 그들이 이 永樂組織에 깊숙히 들어가서 하나의 共同體成員이라고 하는 강한 歸屬意識을 느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극적 자유에 대한 강조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共產主義의 彈壓과 虐政은 증오하되, 다른 形態의 不正義와 不自由에 대해서는 沈默을 지킨다. 오늘 韓國社會 안에 存在하는 여러 형태의 不條理 특히 政治的 不自由와 一部 企業人들의 不正義에 대해서 永樂은 沈默으로 一貫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인상은 永樂이 결국 가진 자와 부리는 자 계층의 既得利權에 대해서 최소한 默認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 되며, 이 계층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社會・政治・經濟的 行態에 대하여 조금도 예언자적인 證言과 批判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결국 永樂教會의 全般的인 理念雰圍氣는 保守的인 것이고 永樂은 예언자적 姿勢 보담 祭司長的 姿勢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激變하는 우리 狀況에서 이른바 하나님의 宣敎에 동참하는 일에 妨害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영락교회가 갖는 구조적인 長點들 중에서 우리는 거의 均衡된 男女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敎人의 性比는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낸다. 대체로 韓國教會는 女性들의 敎會라고 할 수 있다. 成人들을 中心으로 보면 男性 30%에 女性 70% 정도가 된다. 수로 보아 한국교회는 女性中心的 構造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것을 女性主導型의 구조로 볼 수는 없다.⁴⁾ 이같이 女性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既婚者 중에 女性만이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信仰과부’란 말로 表現한다면 한국교회에는 신앙과부가 많다. 이들의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으로 금이간 가정이다. 정신적으로 不安한 가정의 主婦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활동함으로써 不安한 가정을 온전케 환원시킨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

4) 女性 主導型이란 女性이 教會內의 主要決定過程에 主導的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뜻한다. 수로서는 女性이 교회안에서 多數集團(majority group)을 형성하나, 그 영향력으로 보아서는 少數集團(minority group)에 不遇하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基督敎 思想』, 1976. 9월호 參照.

고 오히려 이들이 교회에 깊숙히 참여할수록 가정에서 더 심각하게 疎外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신앙과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永樂은 家族中心의 教會이다. 男子 47% 對 女性 53%의 比率인데, 이것은 理想的 性比이며 동시에 영락신도는 온 가족이 함께 적어도 夫婦가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기에 永樂은 安定된 家庭들이 많이 교회에 참여하는 安定된 教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永樂의 다른 하나의 構造的 特徵이요, 韓國의 다른 教會에서는 볼 수 없는 바람직한 특징이다.

Ⅲ. 敎人들의 意識 構造 分析

1. 調查概觀

全體 永樂敎人을 母集團으로 하여 調查研究하는 것이 理想的이었으나 여러가지 除約 때문에 그렇게할 수 없었다. 부득불 標本調查를 할 수 밖에 없었다. 1976년 5월 현재 永樂敎人數는 12,987명이다. 서울市內 各區別로 作成된 敎人名簿에서 每 13人씩 사람을 抽出하였다. 그러니까 1,000名을 추출하였다. 1,000名이란 수는 教會의 區域當 대개 3명이 되는 셈이다. 영락교회는 329개의 區域을 갖고 있다.

일종의 無作為式으로 1,000명을 뽑아 그들에게 質問紙를 우송하였다. 처음에는 약 50%의 회수율을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우송후 3週後에 겨우 15% 정도만 회수되었기에 다시 독촉장을 보냈더니 10日後에 약 10%가 더 들어왔다. 결국 모두 들어 온 것이 254명이었고 이중에 쓸모없는 質問紙 24개를 제거하였다. 결국 모두 230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分析할 수 밖에 없었다.

標本の 代表性이 어느정도 강한지를 장담할 수 없으나 회수율이 예상외로 25% 밖에 되지 않았기에 代表性에도 문제는 없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같은 低調한 회수율은 종교현상에 대한 社會科學的 연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永樂敎인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社會科學的으로 파헤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本研究는 어떤 이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段設을 檢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다. 다분히 탐색적인 조사연구이며 서술적인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統計的 處理에 있어서도 단순한 Marginal Total을 많이 活用할 것이며, 거기에다 흔히 獨立變數로 많이 사용되는 學歷, 地域, 年齡의 변수별로 응답자의 응답을 分析할 것이다. 그리고 영락교회의 구조적 특징을 알기 위해서 永樂教會에 다닌 해 수, 즉 永樂 信歷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할 것이다.

2. 永樂教會 自體에 대한 永樂人의 評價

앞에서 지적한대로 永樂은 韓國 第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量的 成長에 있어서 가장 성

공한 교회이며 家族中心으로 安定된 교회이다. 敎인들이 자기 교회를 높이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영락교회를 擇한 이유부터 알아보자. 그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32%)
- ② 同鄉人이 많으므로 (16%)
- ③ 가족이 원래 敎人이므로 (12%)
- ④ 집에 가까우니까 (8%)
- ⑤ 신앙이 급속히 자라므로 (7%)
- ⑥ 모든 면에서 으뜸이니까 (6%)
- ⑦ 친구나 친척의 권유로 (6%)
- ⑧ 교회의 전도받고 (5%)
- ⑨ 기타의 이유

이와 같은 응답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韓牧師의 說敎와 同鄉人이나 가족 때문에 永樂敎人이 된다는 사실이다. 永樂의 매력은 결국 牧會者의 매력이다. 地域共同體의 매력이 相乘作用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영락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46%가 韓牧師의 설교를 영락교회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 매력은 敎會가 體系化된 組織體라는 點이다. 이것은 12%에 不遇하다. 11%의 응답자는 큰 규모의 예배와 集會를 영락의 가장 큰 매력으로 들고 있다. 놀라운 것은 심방 잘하는 것을 영락의 매력으로 본 응답자는 한 사람 뿐이다. 그의 여러가지 項目을 매력으로 지적했으나 모두가 5% 前後에 머물고 있으므로 열거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 분명한 것은 韓牧師의 個人的 特性이 永樂敎會란 구조의 가장 큰 매력의 源泉이라는 點이다.

우리는 永樂敎會가 量的으로 팽창해짐에 따라 따라 혼 혼한 共同體의 性格을 점차 상실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時間差 調查研究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不可能하다. 그런데 本調査의 應答者들 중에 얼마만한 비율이 오늘의 巨大된 永樂을 혼 혼한 共同體로 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락교회가 이토록 크지만 역시 혼 혼한 共同體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5%에 이른다. 共同體가 아니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9%가 되고, 全體로 보아서는 혼 혼한 共同體가 아니지만 敎會內 機關別로 보면 共同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無應答者들이다.

여기서 永樂敎會가 혼 혼한 共同體가 아니라고 反應한 응답자가 거의 40%에 가깝다는 事實에 우리는 注目해야 한다. 짐작컨대 初期에는 거의 모두가 敎會를 따듯한 共同體로 보았을 것이고, 혼 혼한 코이노니아가 전제했을 것인데, 時間이 흐르게 되자 그 共同體의 분위기의 熱

度가 식어진 것 같다. 앞으로는 식어지는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質問을 좀더 자세히 分析해 보기 위해 먼저 成長地別로 보기로 하자. 以北에서 성장한 信者가 以南에서 信者에 비해 영락교회를 혼 혼한 공동체로 보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58%의 以北出身者와 53%의 以南出身者가 공동체로 보고 있다. 이 差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永樂教會에 다닌 年수로 보아 응답자를 三分하였다. 5년 이하, 6~15년, 16년 이상으로 나뉘어 보니, 16년 이상 다닌 信者의 60%와 그 以下로 다닌 信者의 52%가 각각 영락을 공동체로 본다. 역시 오래 다닐수록 공동체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年齡別로 보면 40代 以上에서는 61%가 그 이하에서는 49%가 각각 혼 혼한 공동체로 보는데 이 差異는 통계학적으로 意味있는 差異이다($X^2=5.61, P<0.05$). 즉 연령이 많을수록 혼 혼한 공동체로 보는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教育水準을 三分하여 中學水準 以下, 高卒, 大卒 以上으로 하여 결과를 分析해 보니, 中卒層의 65%, 高卒層의 64%, 그리고 大卒層의 경우 38%만이 혼 혼한 共同體로 본다. 이것은 대단히 意味있는 差異($P<0.01$)이다. 이런 게 볼 때 상대적으로 젊고 學歷이 높은 教人일수록 永樂教會가 혼 혼한 共同體의 性格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3. 信仰과 敎理에 對한 態度

여기서는 세가지 문제에 焦點을 맞추어서 分析하였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이고, 둘째 根本主義에 대한 태도이고, 셋째 正統性에 대한 태도이다. 먼저 기도에 대한 태도부터 살펴 보자. 祈禱의 빈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묶어서 세가지 型의 信者를 區分하였다.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한번 이상하든지 아니면 매주 서너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信者가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거나 또는 그저 중요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를 '간구자'라고 命名하였다. 다음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한번 이상 또는 매주 규칙적으로 서너번씩 기도하는 응답자를 우리는 '위선자'라고 불렀다. 세계로 기도를 적어도 중요한 信仰行爲로 믿으면서도 기껏해야 매주 한번쯤 기도하든지 아니면 별로 기도하지 않는 응답자를 '태만자'라고 定義하였다.

全體應答者中 66%가 간구자로 판명되었고, 태만자가 31%로 나타났다. 위선자는 없고 그 외 기도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3%로 나타났다. 그러니 전체의 $\frac{2}{3}$ 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信者들이지만, 약 $\frac{1}{3}$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태만자임이 들어났다.

成長地域別로 보면 以北出身이 有意한 정도로 以南에서 자란 信者보다 간구자임이 나타났다. 前者의 74%와 後者の 60%가 각각 간구자이다($P<0.01$). 이것은 以北에서 피난은 一世代 永樂信義들이 기도에 더욱 힘쓰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年齡이

많을수록 더욱 간구할 것으로 짐작된다. 40代 以上の 78%가 간구자임에 반하여 40代 以下の 56%만이 간구자이다. 이 差異도 통계적으로 대단히 有義한 차이이다($P < 0.01$). 永樂教會에 오래 다닐수록 간구자의 비율도 증가한다. 즉 52%, 72%, 75%로 간구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 差異도 意味있는 差異이다($P < 0.01$). 敎育別로 보면 놀라움게도 高卒出身에서 간구자의 비율이 제일높다. 76%에 이른다. 반면 中卒層에서는 65%만이 그리고 大卒層에서는 63%만이 간구자로 나타났다. 이것은 學歷이 높거나 혹은 낮으면 기도에 정성이 덜 쏟는다는 뜻이 된다. 이 差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결국, 永樂敎人들 중에서 나이 많은 高等學校 出身 중에서 以北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장 기도에 열심을 낸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信仰의 정도를 기도에 대한 열성을 통해서 보면 高學校만 나온 신도들이 가장 신앙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과연 韓國의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한지를 앞으로 알아볼 必要가 있다.

다음, 根本主義의 性向을 살펴보자.⁵⁾ 根本主義를 尺度로 만든 社會學者들 중에 Martin과 Westie가 있다.⁶⁾ 그들은 根本主義信仰과 不寬容間의 相關關係를 밝혔으며 많은 社會學者들이 이것이 여러가지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는 態度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을 밝혔다. 예컨대 根本主義와 權威主義간의 관계는 Adorno가 밝혔고, 동시에 권위주의와 人種差別, 外國에 대한 敵對感, 그리고 正統性 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⁷⁾

우리는 Martin과 Westie의 尺度 項目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만을 추출하였다. 이 다섯 가지는 根本主義者들이 확고히 믿는 項目들이다. 즉 聖經의 文字無誤說(遂字靈感說), 예수의 처녀탄생, 예수의 기적, 구름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고 천당과 지옥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焦點은 이상의 다섯 가지 敎理自體가 아니고 그 敎理에 대한 信徒의 태도가 얼마나 硬直한가 하는 점이다. 根本主義敎理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根本主義의 態度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根本主義信仰을 다른 社會心理的 態度와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것이 本調査의 一次的目的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문제는 오늘의 永樂敎人이 어느정도 根本主義信仰을 갖고 있으며, 어느정도 이른바 正統性的 敎理를 受容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려는

5) 根本主義(Fundamentalism)란 19세기 末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自由主義神學을 반대하면서 생긴 극단적 保守的 信仰立場을 말한다. 1895년 나이가카라 大會에서 淸명된 5個 根本主義信條는 이들의 입장을 잘 알려주는데 그것은 ① 聖書無誤, ② 예수의 동정녀 탄생, ③ 대속의 구원, ④ 肉體의 復活, ⑤ 그리스도의 再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가지 信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硬直한 태도에 있다. 이것을 받아드리고 해석하는 데 硬直性과 獨斷性이 곧 根本主義의 기본 특색이다.

6) J. Martin and F. Westie, "The Tolerant Perso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59. Vol. 24, pp. 521-528.

7) T.W. Adorno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M. Rokeach,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60.; C. Glock and R. Stark, *Christian Beliefs and Anti-Semitism*, New York: Harper and Row, 1966; C. Kirkpatrick, "Religion and Humanitarianism: a Study of Institutional Implications," *Psychological Monographs*, 1949. Vol. 463, Whole No. 304.; G. Allport and J. Ross, "Personal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37. Vol. 5, pp. 432-443.

것이다. 그러니까 본논문에서 이 信仰狀態를 虔敬, 差別, 權威主義 등과 같은 다른 變數와 相關시켜 보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信仰狀態가 그러한 변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여러 조사연구 결과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의 영락신자들의 근본주의 신앙과 정통적 신앙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간접으로나마 한국 교인들의 신앙상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해방후 한국교회를 팽창시키면서도 부단히 교회를 分裂시켜온 정신적 素地로서 根本主義를 보고 이것이 오늘의 영락교회에 어느정도 강하게 남아있나를 보려고 한다.

다섯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된 根本主義尺度는 5점에서 25점에 이르는 점수 범위를 갖고 있다. 각 항목마다 '절대 찬성'에서 '절대 불찬성'까지 다섯 응답란이 주어졌고 '절대 찬성'이라고 응답했을 때 1점을 주고 '절대 불찬성'에 응답했을 경우는 5점을 주었다. 그러므로 어떤 응답자가 5가지 질문항목에 모두 절대 찬성했다면 그의 尺度點數는 5점이 되고, 또 다른 응답자가 모든 질문항목에 절대 불찬성했다면 그의 점수는 25점이 된다. 分析의 便宜上 尺度點數에 따라 다음 네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 根本主義——5~9
- 準根本主義——10~14
- 懷疑主義——15~19
- 反根本主義——20~25

여기서 우리는 네가지 분류에 붙인 명칭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특히 회의주의와 反根本主義라고 하는 명칭에 神學的 意味를 부쳐서는 안된다. 단지 點數가 올라감에 따라 根本主義態度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注目하면 된다.

全體應答者中 76%인 174명이 根本主義者로 분류되었다. 準根本主義者는 21%에 이른다. 이들을 합하면 무려 97%가 根本主義的 信仰을 갖고 있는 셈이다. 회의주의자는 不過 3%요, 反根本主義者는 단 한사람도 없다. 이러한 결과는 永樂教會에서만 아니라 오늘날 韓國教會 全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짐작된다. 韓國敎人들의 信仰狀態는 이러한 根本主義的인 것과 더불어 巫堂宗敎的인 것으로 크게 大別될 것 같다. 律法主義的 態도와 權威主義的인 態도의 反映인 根本主義는 韓國初代教會에서부터 일어났으나 1930年代에 美國神學者 Machen의 영향으로 韓國教會에 本格的으로 強化되어 왔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른바 保守派教會와 敎人들은 거의 모두가 根本主義信仰姿勢를 확고히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강한 信仰低流가 韓國敎人들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祈福宗敎로서의 巫堂性이다. 本調査에서는 巫堂宗敎의 태도에 대한 分析을 할 수 없으나, 根本主義態度에 대해서는 종래의 常識에 입각한 가정에 적용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地域別로 보면 以北에서 살던 敎人들이 以南에서 成長한 교인에 비해 다소 더 根本主義的인 것이다. 前者의 78%가 그리고 後者의 74%가 각각 根本主義者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有義하지 않다($p > 0.05$). 永樂教會에 다닌 햇수별로 보면 오래 다닌 信者일수록 根本主義的 性格을 더 강하게 띠고 있음이 나타난다. 5년 미만의 信者 경우에는 69%가 根本主義者이고, 6년에서 15년간 다닌 敎人 中에는 79%가 根本主義者다. 15년 이상 다닌 응답자 가운데서는 81%가 根本主義者로 나타났다. 이같은 事實은 통계적으로 대단히 有義한 것이다 ($p < 0.01$). 이 결과는 영락교회에 구조적 분위기가 결국 根本主義的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영락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再社會化(Resocialization)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永樂教會가 保守的임을 확인할 수 있다.

年齡別로 보면 40代 以上에서 더욱 根本主義者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0代 以上の 81%가 그리고 40代 以下の 72%가 각각 근본주의자들이다. 年齡이 올라갈수록 信仰形態가 硬直하고 權威主義임이 들어난다. 이 정도의 差異로서도 年齡이 높을수록 더욱 根本主義的이라고 하는 命題를 意味있는 명제로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 우연하게 근본주의 성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변수간의 관계는 그 어떤 體系的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敎育水準別로 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언뜻 생각하기엔 敎育水準이 낮을수록 더욱 根本主義的일 것 같다.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中卒 以下の 學歷을 가진 응답자의 80%가 근본주의자이고, 大卒 以上の 學歷을 가진자의 65%만이 근본주의자다. 이 差異는 대단히 有義한 차이이다($p < 0.01$). 그런데 놀랍게도 高卒層의 85%가 根本主義者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高等學校出身이 大學出身보다 더 根本主義的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 中卒 以下보다 더 근본주의적이라는 것은 왜 그럴까?

一般的으로 知識水準이 높을수록 事物과 事件의 복잡성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복잡한 현실태를 복잡한 상태대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單純化된 世界認識을 거부하게 된다. 그리고 知的 水準이 높을수록 視角의 多樣性도 존중하고 異見에 대해서도 寬容的이다. 그렇다면 高等學校出身이 中學 以下の 學歷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욱 非寬容的이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高卒層과 中卒層間의 差異가 有義하지 않기 때문에 論議의 除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無視하기에는 너무나 뜻밖의 결과임으로 가상적인 해석이 요청된다. 만일 근본주의적 思考와 行動이 劣等感의 投射로 본다면,⁸⁾ 우리는 高卒層이 大卒層이나 中卒 以下에 비해 劣等感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高卒出身은 大卒出身에 비해 날카로운 相對的 不幸意識(Relative Deprivation)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學歷水準이 낮은 사람을 差別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리가 타당하다면 高卒層이 相對的으로 더욱 根本主義的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8) 근본주의를 권위주의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이것이 少數集團을 差別하는 행동과 깊이 연관된다고 볼 때, 근본주의는 劣等感의 投射로 볼 수 있다.

러나 우리의 자료로는 이같은 추리를 자신있게 할 수 없다. 좀더 충실한 자료가 아쉽다.

그런데 위의 分析에서 분명한 것은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높고, 영락교회에 다닌 信歴이 얕은 以南에서 成長한 敎人이 덜 根本主義的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永樂의인 成人은 가장 根本主義的인 敎人이라고 할 때, 이러한 成人의 특징은 以北出身으로서 나이가 많고 교육은 高卒程度로서 영락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같은 경향이 '간구자'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根本主義信仰과 밀접히 연관된 이른바 正統信仰에 있어서는 永樂敎人의 특징은 무엇일까? 社會學者 Glock 와 Stark 가 구성한 正統性尺度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자.⁹⁾ 正統性指標은 根本主義尺度와 類似하다. 여기서는 神, 예수, 聖經의 기적 및 마귀에 대한 믿음을 尺度化하였다. 예컨대 神에 대한 응답자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다섯가지 응답단을 설정하여 그 가운데 자기 신앙에 맞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즉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함을 확신하며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철저한 不信에까지 다섯 항목을 설정하였다. Glock 와 Stark 의 채점방식에 따라, 각 항목마다 철저히 믿는 경우 1點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零點을 주었다. 그러니 네가지 항목을 모두 철저히 믿으면 4點이 된다. 세가지만 철저히 믿으면 3點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點數範圍는 0點에서 4點까지이다. 이것은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純正統(4點), 正統(3點), 그리고 非正統(0—2點)으로 三分하였다.

全體應答者에서 보면 60%가 純正統으로 나타났고, 18%가 正統으로 나타났다. 非正統的 信仰을 가진 응답자는 불과 20%이다. 순정통과 정통을 합쳐보면 78%에 이른다. 이것은 根本主義者가 76%에 이르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 예수, 성경의 기적과 마귀의 존재를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실히 믿는 永樂信者가 多數를 이루고 있다. 역시 이같은 事實은 永樂敎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韓國敎會全體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地域的으로 보면 예상대로 以北에서 자란 信者가 以南에서 成長한 信者보다 더 正統的이다. 純正統主義者의 비율만 가지고 分析한다면, 以北에서온 信者의 64%가 그리고 以南에서 자란 信者의 56%가 각각 순정통적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P < 0.05$). 그리고 연령이 많은 層이 보다 純正統的이다. 40代 以上の 63%와 40代 以下の 57%가 순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永樂敎會에 오래 다닐수록 순정통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52%, 60%, 그리고 68%로 현저히 증가한다. 이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대단히 有意하다($P < 0.01$). 결국 영락교회의 구조적 분위기가 正統主義的이고 또 根本主義的임을 알 수 있다.

9) C. Glock and R. Stark, *Christian Beliefs and Anti-Semitism*, New York, 1966: Harper & Row, 1966: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Rand McNally, 1965. 근본주의와 정통주의 간의 차이는 그 신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조에 대한 경직된 태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본주의는 배타적, 부정적 윤리에 사로 잡혀 있는 신앙 자세를 말 한다.

敎育別로 보면 간구자와 根本主義의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즉 놀라움게도 高卒出身이 가장 純正統的이다. 中卒 以下の 學歷을 가진 信者의 64%가 순정통적 믿음을 지녔고, 大卒 以上の 학력을 가진 신자중에는 50%만이 純正統的 信仰을 갖고 있다. 그런데 高卒出身層에서는 66%가 純正統主義者로 나타난다. 비록 이것이 中卒 以下層의 배출보다 조금은 더 큰 비율이기는 하나 간구자와 根本主義信仰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點에 우리는 注目해야 할 것이다. 가장 열심히 간구하고 가장 돈독하게 믿고 교리에 가장 강하게 매달리는 敎育階層은 大卒層도 아니요, 아주 낮은 수준의 敎育을 받은 層도 아니라 高等學校만을 나온 層이다. 이렇게 볼 때 永樂敎會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는 層이 高卒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영락교회의 믿음의 主體勢力은 高等學校 出身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敎會內에서 어느정도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순정통적 믿음만은 다른 敎育階層보다 강하다.

전체로 볼때 순정통적 믿음을 비교적 강하게 지니고 있는 永樂信者는 간구자와 根本主義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以北에서 피난온 分으로서 연세가 많고 영락교회에 오래 다닌 高等學校出身의 信者이다. 이렇게 보면, 大學敎育이 純正統的 信仰과 根本主義信仰을 상당히 누그러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大學敎育이 人間의 思考와 感情의 폭을 넓혀주고, 多樣性에 대한 寬容을 넓혀주며 硬直한 態度를 軟化시켜 준다고 가정한다면 곧 이해될 수 있다. 根本主義와 純正統性을 다같이 宗教的 權威主義로 본다면 敎育과 權威主義의 態度와는 反比例한다는 전통적 見解가 적중된 셈이다. 韓國敎人 一般이 敎理에 대하여 二分法的인 思考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가정할 때, 이같은 二分法的 思考가 지니고 있는 權威主義要素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敎人들의 敎育水準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4. 世俗事에 대한 態度

오늘 한국교인들이나 영락교인들이 다같이 根本主義信仰과 純正統信仰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信者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世俗에 대하여 몇가지 태도를 취할 것으로 추리한다.

첫째, '修身性'¹⁰⁾을 강조할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社會名目論的 誤謬'¹¹⁾에 빠져

10) "修身性"에의 강조란 個人的 倫理的 完成이 자동적으로 集團과 社會라고 하는 커다란 構造의 統合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한다. 個人的 修身만 잘하면 國家問題와 世界問題도 저절로 잘 되리라는 낙관적인 見解는 자연히 個人的 修身을 社會問題 解決의 捷徑으로 보는 견해를 낳는다. 修身해야 齊家할 수 있고 그레야만 治國과 平天下도 할 수 있다는 儒家의 가정은 곧 治國 平天下의 문제해결을 修身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가정과 相通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문제는 修身性에의 강조가 갖는 保守的 機能이다. 즉 支配階層이 修身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修身에 성공할 수 없는 無識한 民衆은 治國이나 平天下 따위의 構造의 問題에 曰可曰否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民衆이 治國問題나 平天下의 문제에 대해서 批判할 수 있는 資格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규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點 다음 논문을 참조한다. Wan Sang Han, "Perception of Limited Opportunity and Self-Ability, and Deviations among Urban Adolescents: A Test of the Anomie Hypothesis in a Non-Western Society,"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III, 1974.

서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많아지면 범죄나 부정 부패 같은 사회현상이 저절로 없어지리라고 믿게 될 것이다. 社會構造惡 또는 惡의 構造的 性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곧 個人的 修身이 齊家와 治國과 平天下라고 하는 구조적 일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으로 본 儒家들의 發想과 비슷하다.

둘째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Cox가 말하는 世俗化를 世俗主義로 혼동하여 開放的 信仰과 解放시키는 行動을 이해하지 못한다. 신앙은 律法主義로 흐르기 쉽다. 世俗化(Secularization)가 갖는 解放的인 意味, 多樣性을 존중하는 成熟한 태도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째로 그렇기 때문에 世俗이라고 하면 무조건 否定的 反應을 보이기 쉽다. 世俗은 썩어진 장소, 불결한 공간으로 본다. 罪가 가득찬 곳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급적이면 이곳을 피하든지 아니면 個人的 信仰으로만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째 위의 것과 연관된 것으로서, 가난과 범죄와 같은 社會現象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 쉽다. 언뜻 보기에 개인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歷史的 產物이요, 構造的 產物임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것을 이른바 保守的 視角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修身性'의 發想에 기초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과 永樂敎人들은 한 마디로 構造的 思考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社會構造惡을 개인의 次元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기있는 證言을 하기 어렵다. 그저 믿는 것이 즉 믿는다는 個人的 決斷이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첩경으로 확신하기에 잘못된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도 혼자 열심히 信仰心만 올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個人敎援 執着症이 강하게 나타난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宗教的 個人主義 및 信仰的 利己主義에 빠져버린다. 불한당을 만나 쓰러져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은 副次的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오늘 한국교인들과 영락교인들의 문제가 있다.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無視하게 된다. 이웃에의 관심은 사회적 관심이요, 불한당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이웃에의 관심은 곧 사회정의에의 관심이며 構造改善에의 관심이다.

과연 영락교인들은 세속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먼저 예수 믿게 되면 사회범죄와 부정 부패가 저절로 줄어진다고 보는 문제부터 살펴보자.

예상대로 全體應答者 중에 81%가 信仰에 대하여 社會名目論的 判斷을 하고 있다. 즉 예수를

11) 社會名目論的 誤謬란 個個人的 言이 바로 社會이기 때문에 社會는 個人的 合에 不過하다고 하는 社會名目論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말한다. 여기 오류라고 하는 이유는 個人들 間의 實질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이른바 出現的 屬性(emerging property)을 無視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속성 때문에 社會는 個個人的 算術的 合보다는 크고 강한 것이다.

믿으면 범죄와 부패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는 주장에 강력히 同意하는 응답자가 81%가 된다. 그리고 그저 同意하는 응답자가 15%이다. 이 주장에 不讚成하는 者는 불과 2%요, 강력히 不讚하는 者는 1%에 머문다. 이렇게 보면 壓倒的인 多數가 예수를 믿으면 부패와 범죄는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같은 주장에 적어도 찬성하는 응답자는 96%에 이르고 있다.

地域的으로 보면 이 주장에 강력히 찬성하는 者의 비율이 以北出身의 경우는 87%, 以南에서 성장한 신자의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이 差異는 意味있는 差異($P < 0.05$)이다. 永樂教會에 오래 다닌 사람들중에 이 비율은 약간 더 높다. 5년 以下의 永樂信歷을 가진 응답자의 75%가 강력히 찬성하는데 비해 그 이상으로 다닌자 중에는 84%가 강력히 찬성한다. 여기서도 영락교회의 구조적 분위기가 '修身性'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본다.

40代 以上の 87%와 40代 以下の 75%가 각각 社會名目論的 판단을 강력히 所有하고 있다. 이 差異도 意味있는 차이이다($P < 0.01$) 教育水準別로 보면, 學歷水準이 올라갈수록 社會名目論的 判斷에 강력히 찬성하는 비율이 意味있게 내려가고 있다. 즉 86%, 74%, 69%로 내려간다. 中卒 以下에서는 86%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범죄와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 反面, 大卒 以上에서는 69%만이 그렇게 믿는다.

결국 여기서도 修身性的인 태도나 社會名目論的 態度는 지역, 信歷, 教育 및 年齡과 관계되고 있음을 본다. 나이가 많고 영락교회를 오래 다닌 以出身出으로서 學歷이 낮을수록 개인 믿음에 대한 강조가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 전체에도 적용되리라고 본다.

이같은 관찰을 좀더 補完하기 위해 犯罪의 暴惡化가 犯罪者個人的 잘못인지, 아니면 構造의 잘못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전체응답자 중에 65%를 구조 탓으로 돌리고 29%만이 개인 탓으로 여긴다. 둘다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불과 3%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예상한대로이다. 以北에서 내려온 信者는 以南에서 자란 신자보다 구조적 원인을 더 잘 보지 못한다. 前者의 59%가 그리고 後者의 69%가 犯罪의 暴惡化를 구조 탓으로 본다. 이 차이는 有意하다. 나이에 따라보면 差異는 더욱 현저해진다. 40代 以上에서는 56%가 구조의 탓으로 보는 반면 40代 以下에서는 73%가 구조의 잘못으로 본다. 永樂教會에 다닌 信歷으로 보아도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71%, 63%, 61%로 下向한다. 이것은 永樂教會의 構造的 분위기가 修身性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별로 보면 이 差異는 더욱 현저해진다. 中卒 以下の 경우 46%만이 구조의 잘못으로 보며, 高卒層에서는 70%가 구조 탓으로 본다. 大學 以下の 경우는 79%가 범죄의 포악화를 구조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전체를 놓고 볼 때 범죄의 포악화에 관한 영락교인들이 구조의 잘못을 인식하는 비율은 높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연령, 信歷, 및 교육이라는 여러 변수를 통해서 볼 때 영락

교회의 實力者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修身性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즉 以北에서 피난온 나이 많은 신자로서 영락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개인의 잘못을 더 강조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의 잘못을 더 강조한다.

세속사회에 대한 永樂教人의 태도를 하나 더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選擇을 주고, 그 가운데 응답자의 태도에 알맞는것을 택하도록 하였다.

- ① 세속사회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 ② 세속과 교회는 구별되나 어쩔 수 없이 세속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 ③ 세속과 신앙이 不調和되어 자신이 불안해 한다.
- ④ 죄악세속을 믿음으로 고쳐야 한다.

이중에서 죄악세속을 믿음으로 고쳐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5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 두 세계가 不調和되어 不安하다고 한 응답자인데 23%에 이른다. 다음이 세속사회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19%이고, 이 두세계를 구별되지만 세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가 5%에 不調和하다. 그러니 소위 世俗型은 5%에 불과하고, 개인의 믿음으로 세속을 고쳐야 한다는 소위 信仰型이 過半數를 넘는다. 갈등을 느끼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 예상외로 世俗을 기피하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적다.

그러나 이 세속기피자들의 性分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위에서 계속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 영락교회의 主役들 중에서 세속기피형이 상대적으로 많으리라고 짐작된다. 과연 그럴까? 地域別로 보면 主役들이 以北出身인데 이들 중에 세속기피형이 좀더 많다. 23% 對 17%로 나타난다. 永樂教會의 主役은 역시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터인데 永樂信歷이 오래될수록 기피형인간이 증가한다. 16%, 17%, 25%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으로 보면 永樂의 主役은 老人層일터인데 40代 以上에서는 24%가, 40代 以下에서는 15%가 각각 세속기피형이다. 教育別로 보면 이 差異가 더욱 현저하다.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세속기피형은 증가한다. 즉 10%, 15%, 33%로 증가한다.

이같은 分析結果는 위의 다른 결과와 대체로 一致한다. 오늘의 永樂教會안의 여러가지 決定過程에 影響력을 행사할 수 있는 層의 性格을 以北出身, 年老者, 永樂信歷이 많은 者 및 學歷水準이 그렇게 높지 않는 者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들은 한마디로 세속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個人的 信仰만이 모든 문제해결의 근원으로 보는 保守的 信徒이며, 構造的 思考에 不便을 느끼며 修身性을 강조하는 社會名目論的 思考를 하는 保守主義者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영락교회의 主役일 것임을 추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신자의 대부분의 성격이 그렇고 또 한국교회지도자의 대부분이 수로보야 이같은 보수주의자일 것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社會 안에서의 機會構造에 대한 인식과 自己能力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가지 변

수의 組合을 통해서 營略敎인의 社會적 性格을 좀더 알아보자. 성공하는 機會가 열려 있고 또 성공함에 필요한 能力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낙관적이면서 進取的인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有能한 人間이다.

이러한 人間은 全體標本의 38%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단히 有意한 差異가 나타난다. 以北 出身의 29%만이 낙관적이면서 有能한 사람임에 비해 以南에서 성장한 信者 中에는 44%가 有能한 낙관주의자이다. 年齡別로 보면 이 差異가 더욱 커진다. 40代 以上의 27%와 40代 以下의 48%가 각각 유능한 낙관주의자이다($P < 0.01$). 營略敎회의 信歷別로 보면 오래 다닐수록 유능한 낙관주의자의 비율은 줄어진다. 즉 47%, 40%, 그리고 28%로 줄어진다. 敎育別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비율은 증가한다. 즉 28%, 38% 및 48%로 증가한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營略敎회의 主役이라고 짐작되는 信者일수록 機會구조가 폐쇄된 것으로 인식하며 자기의 無能力을 잘 알고 있는것 같다. 즉 以北出身의 나이가 많은 信者로서 營略敎회에 오래 다니고 敎育水準이 낮은 信者는 성공할 수 있는 機會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비관하며 성공할 능력도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世俗社會에서 적극적으로 살아 갈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 세속에서 비관적일수록 信仰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보다 간구자적이고, 보다 根本主義的 信仰을 갖게 되고, 더욱 正統的 信仰을 지니게 됨을 이해하게 된다. 만일 이같은 해석이 타당하다면 營略敎인의 열렬한 信仰은 世俗社會에서의 疎外感과 自己能力에 대한 悲觀的 把握에서 오는 하나의 心理的 投射라고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추리는 비단 營略敎회에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韓國 敎會 全般에 해당될 것이며 특히 保守敎團과 保守敎會일수록 더욱 잘적용될 것으로 짐작된다.

IV. 맺 는 말

韓國改新敎는 적어도 解放前까지만 하더라도 그 成長의 底力을 바람직한 社會價値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初期에는 愛國, 愛族心에서 그 成長의 素地를 발견한다. 학대받던 民衆을 위한 敎회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自立과 自強을 위해 몸바쳐 일한 엘리트의 敎회였다. 大韓帝國이라는 국가가 日帝에 의해 敗亡한 후에는 民族主義情熱의 温床이었고 民族文化, 한글 死守運動의 기둥이 되었다. 韓末에 形成된 한국기독교敎인들의 民族主義情熱은 105人 事件과 같은 日帝彈壓下에서도 식어지지 않았으며, 그후 3.1運動의 정신적 活力素로 作用하였다. 1930年代의 文族抹殺運動과 經濟的 收奪政策下에서도 物產獎勵運動과 民族文化守護運動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¹²⁾

12) 3·1운동 이후에는 韓國民族主義 自體가 民主主義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民主主義 理念이 韓國 民族主義의 基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한국기독교는 다음의 세가지 歷史的 幸運을 가졌고, 이것이 적어도 日帝時期까지 한국교회를 成長시켰고, 유지시켜온 정신적 힘이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한국교회는 첫출발에서부터 貪官汚吏의 虐政에 시달렸던 民衆을 보호한 교회였다는 사실이다. 親民衆의 교회였다는 사실은 약 2000年前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狀況에서 그 당시 차별받던 民衆인 Am-bi-aretz의 친구가 되었다는 歷史的 事實과 相通한다.

둘째 韓國教會는 처음부터 民族主義情熱에 불탔던 先覺者들의 교회였다. 反封建開化意識으로 무장된 支配層의 官僚縉紳들이 教會의 指導勢力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自主獨立意識에 불타면서 동시에 民主的 國家建設에도 獻身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세번째 幸運을 발견한다.

흔히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는 서로 잘 맞지않는 理念으로 생각된다. 民族主義는 特殊主義인 반면에, 民主主義는 普遍主義이다. 그런데 韓國基督教 안에서 이 두 理念은 서로 補完的인 관계를 形成하게 된다.¹³⁾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民族主義 情熱을 갖고 日本帝國主義에 항거하는 民族主義運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理念으로 무장하여 民主主義制度를 土着化시키는 데도 앞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韓國民族主義가 韓國基督教을 통해 開放的 民族主義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韓國教會와 教會學校(Mission School)은 民主主義訓練道場이었으며 民主主義指導者를 育成해낸 民主的 制度였다. Ernest Fisher는 3.1運動 當時의 情況을 證言하면서 당시 己未年獨立運動에 참가했던 學生들이 教會學校(Mission School)에서 배운 民主主義 價値觀과 밀접히 연관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民主主義政府의 原則들, 人間의 基本權, 言論・出版의 自由, 링컨의 民主主義思想 등이 己未年運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¹⁴⁾ 이것은 곧 民族주의와 民主주의가 자연스럽게 한국기독교 안에서 만나 調和를 이룩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國家가 넘어지고, 民族이 抹殺될뻔 했던 저 19세기 末의 狀況과 그 후의 日帝狀況에서는 한국기독교가 國家(State)를 自立・自強시키고 民族(Nation)을 보호하려는 운동에 앞장섰다. 국가가 日帝에 의해 亡한 후 民族이 계속 壓迫받게 되고 民主主義思想과 制度가 발부칠 곳을 찾기 어려웠던 暗黑期에 한국기독교인들은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蠟燭을 높이 들었다. 바로 여기에 많은 民衆과 知識人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이유를 간접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本理念의 하나로 되었다. 그리고 더우기 特記할 것은 韓國 民族主義는 영광된 과거의 黃金時代에로 복귀하고 낭만주의적 特殊主義나 未開한 原始社會에서 볼 수 있는 閉鎖的 이고 편협한 種族主義와는 달리 近代化와 民主化를 志向한 개방적인 民族主義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民族主義와 民主主義가 만나기 쉬웠던 이유기도 하고 바로 여기에 改新敎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車基堊, 前掲書, 그리고 改新敎會가 民族主義 情熱과 더불어 民主主義 理念을 공급한 새로운 社會制度이며 信仰共同體란 點을 宋吉燮 교수는 잘 밝히고 있다. 宋吉燮, “韓國 改新敎會와 民族主義”, 基督教思想 220號, 1976년 10월호, pp. 33-47.

13) 李萬烈, “韓國基督教과 民族主義・韓國基督教史를 民族史의 次元에서 보려는 試論”, 基督教思想 220號, 1976년 10월호, pp. 48-57.

14) J. Ernest Fisher, “March First 1919 and the Missionaries,” *Korea Calling*, Vol. 14, No. March, 1975. p. 2.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以後는 무엇이 韓國教會의 量的 成長을 가져왔는가? 筆者는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價値觀과 思考가 教會의 量的 成長의 素地가 되었음을 시인한다. 물론 解放된 후 信仰의 自由가 허용되었던 南韓에서는 그간 日帝에 의해 정치적으로 눌러 제대로 活動하지 못했던 교회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되자, 교회가 量的으로 팽창할 수 있었고, 또 以北의 共產全體主義가 들어서게 되어 信仰의 自由가 박탈되자 많은 信者들이 南下하여 南韓에서는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다. 六·二五의 戰亂으로 인해 많은 피난민들이 南下하여 또한 教會擴張의 原因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教會成長의 요인은 韓國敎人들의 두 가지 精神狀態에서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根本主義心성과 巫俗의 祈福性이다. 本論에서는 巫俗性에 대한 分析이 없었으나 祈福除禍의 巫堂宗教의 特性이 극한적인 狀況에서 교회를 확장시킨 原因이라고 하는 點을 우리는 無視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根本主義가 계속 교회를 量的으로 成長시키면서도 동시에 부단히 교회를 分裂시켜 왔다는 사실에 注目코져 한다.

根本主義는 信仰의 情熱을 가져오기도 한다. 순수하고 正統의인 것에의 강한 욕구는 完全主義性向을 지닌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다. 그러나 根本主義의 性向을 강하게 지닐수록 이른바 ‘不純한 것’과 ‘非正統의인 것’을 계속 分離시켜 이것을 差別하고 定罪해야 한다. 이렇게 分裂시키면서 자기들은 量的으로 成長하는 것이다. 解放과 더불어 韓國教會는 바로 이같은 根本主義者의 宗教의 定罪에 의해 계속 分裂되었다. 再建派가 이 分裂을 그들의 ‘순수성’의 固執을 통해 조장했고, 다음 高麗派가 分裂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 다음 예수교 長老敎가 基督敎長老敎를 이른바 ‘新神學’으로 定罪하여 教會는 分裂되었다.¹⁵⁾

이른바 合同側에 의해 統合側이 ‘容共’ 및 自由主義라고 定罪되므로써 또 한번 교회는 分裂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分裂이 全體로 볼때 韓國教會의 量的 成長에 기여했다는 아이러니칼한 사실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分裂된 敎團은 自己敎團의 擴張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分裂당시 定罪하는 立場에 서있는 교단측일수록 量的 成長에 더 力點을 둔다. 이것이 根本主義가 해방 이후 教會量的 팽창에 기여했다는 우리의 假設의 밑받침인 것이다. 그런데 分裂 속에 팽창해 온 한국교회, 즉 敎派의 視角에서는 分裂이지만 한국교회 全體로 보면, 팽창을 해 온 한국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더우기 그것이 根本主義에 立脚해 있다고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性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도 宣敎 100周年을 향해 각 교파는 量擴張計劃에 담대하다. 그만큼 質的 強化에 무관심한 것 같다. 質的 強化를 이른바 하나님의 宣敎에 참여하려는 意識의 고취 또는 意識化에

15) 물론 教會分裂을 이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다. 神學的 오리엔테이션 以外 宣敎師와의 관계, 敎派內 財政의 문제, 敎權싸움 등 여러가지 要因들의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복합적 要因을 꿰뚫고 흐르는 하나의 정신적 要因이 있다면 그것은 根本主義的 精神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 찾는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量的 擴大에만 정신을 쓰지 質的 向上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다.

우리는 永樂教會의 現況分析을 통해 아직도 根本主義的 要素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본다. 量的으로 볼때 가장 成功的으로 成長한 永樂教會의 主役들 속에서 根本主義가 강하게 남아있고 反世俗主義傾向이 강하다고 볼 때 이같은 量的 成長이 보다 義로운 社會構造와 보다 正當한 歷史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같은 量的 팽창이 修身性에의 강조, 個人救靈에의 강조로 인해 보다 正義롭고 보다 自由로운 社會構造의 創造에 妨害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量中心主義 信仰은 누룩이 아니라 아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